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2019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BEST PRACTICES

깜밥이날다
두리함께
루미르
만인의꿈
성동행복한돌봄
앨리콜하우스
착한세상
함께나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

CONTENTS

사회적기업 현황	04
----------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05
------------	----

PART 01. 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기업 이해	07
----------	----

사회적기업 연혁	08
----------	----

사회적기업 현황	10
----------	----

info 예비사회적기업	12
--------------	----

info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3
-----------------------	----

PART 02.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목적	15
-------	----

인증 요건	15
-------	----

인증 절차	18
-------	----

info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9
-----------------------	----

PART 03.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21
----	----

정부 지원 부문	22
----------	----

info '19년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한눈에 보기	30
------------------------------	----

info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31
-----------------------------------	----

민간·공공 사회공헌자원 연계 지원 부문	32
-----------------------	----

PART 04.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37
--------	----

사회서비스제공형	39
----------	----

혼합형	40
-----	----

지역사회공헌형	42
---------	----

기타형	44
-----	----

info 가치를 아는 착한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46
---------------------------	----

PART 05.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감밥이날다 누룽지자활협동조합	50
-----------------	----

두리함께(주)	58
---------	----

(주)루미르	66
--------	----

(주)만인의꿈	74
---------	----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82
-----------------	----

엘리올하우스(주)	90
-----------	----

(주)착한세상	98
---------	----

(주)함께나눔	106
---------	-----

사회적기업 현황 (2018. 12.)

'18.12월까지 61차에 걸쳐 총 2,473개 인증, 현재 **2,123**개소 활동 중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389 18.3%	102 4.8%	68 3.2%	126 5.9%	109 5.1%	63 2.9%	77 3.6%	355 16.7%	119 5.6%	93 4.4%	95 4.5%	127 6.0%	112 5.3%	133 6.3%	97 4.6%	48 2.3%	10 0.5%

설립경로별 현황*

*설립경로 중복포함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 작업장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1,373	181	44	162	9	244	489

조직형태별 현황

비영리					영리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조합
268 12.6%	88 4.1%	75 3.6%	100 4.7%	3 0.1%	1,278 60.2%	73 3.4%	92 4.3%	146 6.9%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1,427 67.2%	128 6.0%	121 5.7%	193 9.1%	254 12.0%

서비스 분야별 현황

문화, 예술	청소	환경	교육	사회복지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육	보건	문화재	산림 보전	고용	기타*
245 11.5%	204 9.6%	114 5.4%	183 8.6%	115 5.4%	96 4.5%	48 2.3%	15 0.7%	16 0.8%	9 0.4%	9 0.4%	8 0.4%	1,061 50.0%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018. 12.)

'18.12월까지 부처형 + 지역형 **1,566**개소 활동 중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총 612개

▶ 부처별 지정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개소)

구분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계
지정수	3	9	22	75	29	10	27	389	612

▶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계
활동중	30	26	11	60	456	6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총 954개

▶ 지역별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정수	154	63	44	51	17	25	43	126	73	36	29	74	44	92	50	25	8

▶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계
활동중	227	131	60	282	270	954

사회적기업 이해	07
사회적기업 연혁	08
사회적기업 현황	10
예비사회적기업	12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3

사회적기업 이해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TIP 더 쉽게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TIP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회사만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기업 연혁

연도	내용
1945년 이후	▶ 생산자협동조합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조직은 해방 이후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각 지역 단위로만 들어졌던 의료협동조합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97년	▶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97년 IMF외환위기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자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이 질적 수준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일자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 전국실업극복 단체인대 외, 2005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활정책연구 모임과 같은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TIP <u>외국의 법제화 현황은 어떤가요?</u>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되던 2007년의 유럽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사회적 목적 기업(벨기에)”, “사회연대 협동조합(포르투갈)”,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스페인)”, “집단적 이익 협동조합(프랑스)”, “지역 사회이익 기업(영국)” 등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 제 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단계적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도	내용
2011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개 본부, 6개팀)
2012년	▶ 제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7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확대 법정부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사업개발비 지원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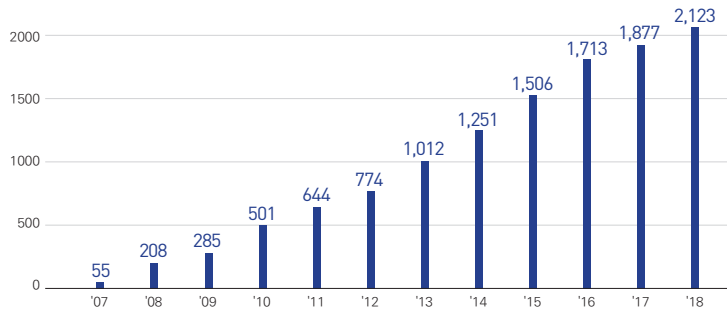
양적·질적 성장

2007년 55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18년 12월 기준 2,12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같은 경영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 기업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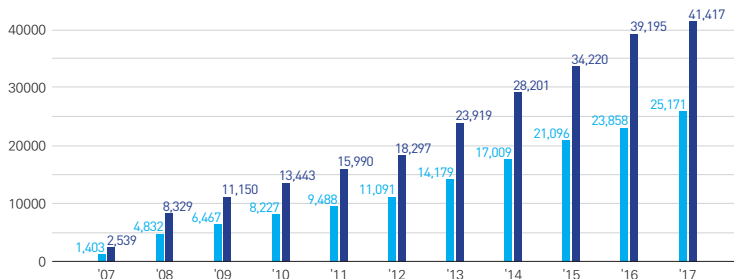
인증 사회적기업 수

2018년 12월 기준, 누적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출처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성과분석 자료



TIP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17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41,917명에 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25,529명에 달합니다. 사회적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체가 1개 기업이 평균 5.4명을 고용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당 22명을 고용하여, 매출액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일반 사업체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16년 사업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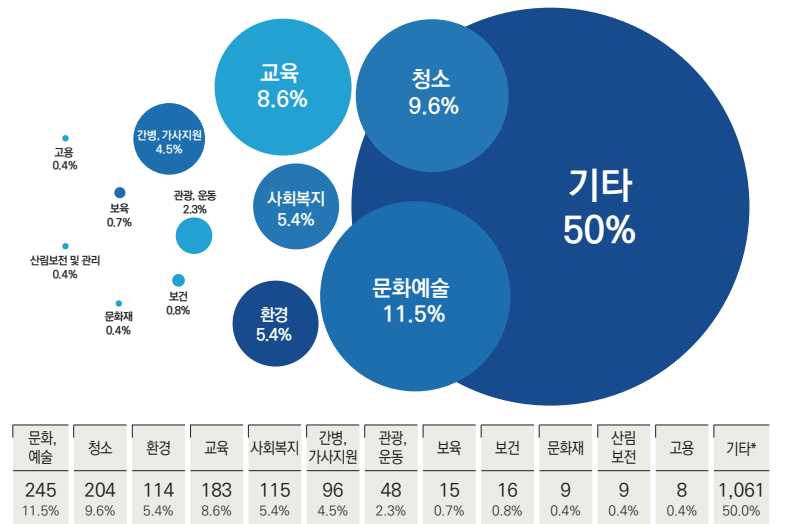
또한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97.6%에 달해서 일반 사업체에 비해 높고(평균 89.1%), 높은 일자리 안정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사회문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2018년 12월 기준



문화, 예술	청소	환경	교육	사회복지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육	보건	문화재	산림 보전	고용	기타*
245	204	114	183	115	96	48	15	16	9	9	8	1,061
11.5%	9.6%	5.4%	8.6%	5.4%	4.5%	2.3%	0.7%	0.8%	0.4%	0.4%	0.4%	50.0%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이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7가지)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추구(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예정)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요건	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 적으로 할 것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④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사회적기업은 특정 가치관을 지닌 기업인가요?

반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서구 선진국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지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점차 고갈되고, 빠르게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업·빈곤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Q. 사회적기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끝나게 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정부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97.2%에 달하며(2015년 지원 종료), 5년 생존율 또한 84.4%로(2011년 지원 종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소셜벤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했다면, 소셜벤처는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벤처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 제도화 : 법적 규율을 통한 인증 제도 도입, 인증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이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중 “기타형”의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12월 발표한 3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 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정의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2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목적	15
인증 요건	15
인증 절차	18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9

인증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둘째, 경영 등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이 가능토록 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넷째,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

TIP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TIP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TIP 가장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인증 신청 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월 기준 6개월의 실적을(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적 증명 방법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TIP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리기업은 주주와 대표자 등 자본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자본 소유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 관계자, 외부 전문가, 후원자, 연계기업 등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회의체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TIP “노무비의 50% 이상”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는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유급근로자의 지난 6개월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지난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TIP “사회적 목적”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사회적 목적의 범위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요거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많은 아이에게 요거트를 공급하기 위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신축 공장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됩니다. 심사는 격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TIP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주관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인증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현장 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검토 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인증 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육성전문위원회 주관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TIP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pns.or.kr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 (우산동)	033-749-3905	gwcs0524@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sescop.co.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중앙로 43, BYC빌딩 7층 (치평동)	062-383-1136	ses@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masterjse@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hanmail.com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 (선화동)	042-223-9914	c-cmail@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5층 (운천동)	043-222-9001	cbse@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아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gamil.com

03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21
정부 지원 부문	22
'19년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한도에 보기	30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31
민간·공공 사회공헌자원 연계 지원 부문	32

개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책에서는 “정부 지원 부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이 연계하여 조성된 “민간 지원 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TIP 법률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회적기업 육성법)

- 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 ②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③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 ④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 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 ⑥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TIP 예비/인증 여부에 따른 지원의 종류

구분	사업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직접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
간접지원	사업개발비	○	○
	경영컨설팅	○	○
	세제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	×
	융자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

TIP 사회적기업에 대해 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난 60~7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시기에 정부는 수출 보증과 저리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한국도 현재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장 또는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책을 단순히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사회적기업은 과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이 국민의 힘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함께 일궈냈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제2의 도약을 일궈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부 지원 부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①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층에 소셜벤처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한 소셜벤처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 동아리를 발굴하여 관련 프로젝트 실행 및 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원, 워크숍 및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입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크게 아이디어 부문에 청소년/대학생, 창업연계 부문에 일반창업/글로벌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진행되며, 2018년까지 총 10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정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 모집하여 1년간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입니다. 매년 1~2월 중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창업공간, 상시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관련 창업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성수동 2가 280-38) 아인빌딩 8, 9층	02-467-2510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광안동 74-1)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4, 5층	051-753-250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효자동 2가 1288-5) DNB빌딩 5, 6층	063-223-2503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수진동 4004) KT모란지점 5, 6층	031-757-25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1028) 대교대전센터 3, 4층	042-489-5790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북성로1가 6-1) 대구스��이션아울렛 10, 11층	053-431-982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①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 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후 지원을 받게 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인건비의 9%)를 지원받게 됩니다.

TIP 인건비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IP 지원대상이 되는 전문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단순 경리·서무는 제외)
- ②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 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③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④ 항목 “①” 각 분야 및 경제·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18년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④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써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수준에 맞게 “초기 → 성장 → 자립”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TIP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 ①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 또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정보통신, 유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②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③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④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 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⑥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연구기관

⑤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일부를 4년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제한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하는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 기관, 장기요양 보험 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②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③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

※ 부정수급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 회수

⑥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를, 재산세는 25%를 감면해줍니다.

※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⑦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구매 품목 중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초 해당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TIP 공공기관은 주로 어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나요?

기념품, 도시락, 청소, 인쇄, 사무용품, 문화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점차 그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⑧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e-store 36.5+)을 매개로 상품 경쟁력과 유통 채널 입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홈쇼핑·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다양한 상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99개의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장(store 36.5)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 판로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36.5+)	- 사회적경제 상품물 : 전국단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 - 공공조달 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공공 조달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 - 판로지원 정보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각종 판로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및 참여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
입점역량 강화 지원	- MD상담, 교육 : 유통채널별 1:1 MD상담 지원 및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기본개선 : 상품 사진 촬영 등 상품 홍보 콘텐츠 개선 지원 - 중점개선 : MD상담 등을 통해 입점에 필요한 개선사항 진단 및 개선 지원 - 입점연계 : 중점개선 상품 대상 유통채널 입점 연계
입점 및 판로확대 지원	- TV 홈쇼핑, 백화점, 특별전 개최 등 국내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원)
공동판매장(store36.5) 운영 지원	- 오프라인 판매장(99개소, '18년 12월 기준) 운영 지원 - 판매장 모니터링 및 운영 자문, 수발주 및 리뉴얼 지원 - 우수 상품 발굴 및 입점 확대

⑨ 금융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자금으로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다각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제도 총괄표

구분	사업명	내 용	주 체
일반 대부	미소금융 (08년~)	•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조건 : 복지사업자별 상이, 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 원리금 분할상환(복지사업자별 상이)	복지사업자 (10개소) 열매나눔재단, 신나는조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10년~)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출한도 : 45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 보증 대부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특별보증 (12년~)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별보증 운용 • 한도 :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이내 • 대출조건 : 금리 3.7~4.6%, 대출기간 5년 이내 • 수행주체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대처 : 특례보증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지역신용 보증재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12년~)	• 정부 핵심정책분야 지원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 한도 :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조건 : 금리 약 4%, 대출기간 5년 이내	신용보증 기금
투자	모태펀드 (11년~)	•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 규모 : '13년 60억원, '14년 40억원, '18년 108억원	(주)한국 벤처투자
	임팩트 투자펀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창업)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크레비스 파트너스 등
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 • 임팩트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기업 및 개인대출 지원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크라우드펀딩대회 (15년~)		•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조달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펀딩 대회, 시민투자자모디션 등 • 18년도 실적 - 펀딩금액 : 1,151,309천원 - 성공기업 수/프로젝트 수 : 65개 / 69개 - 최고 투자금액 : 후원형 142,740천원, 증권형 100,000천원, 대출형 85,000천원	고용부, 진흥원

⑩ 프로보노 지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예비)사회적기업 경영 자문 또는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능기부뱅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⑪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 입문 과정과 맞춤형 아카데미 등 다양한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주요 대상	과정명	운영내용
학교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사회적경제 진로 탐색 및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 위한 1박2일 체험 프로그램
	초중고 교사 연수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등 초중고 교사 수업 역량 제고
신규 진입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 대상 기본 창업 교육 및 모의 창업 경연 대회 진행
종사자	사회적기업 맞춤형 아카데미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위한 주요 대상 및 분야별 전문역량 강화 교육
지원 인력	강사양성과정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수법, 교안제작, 모의 강의 시연 등
	교육전문가 역량강화과정	현장 밀착형 교육 운영 담당자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기획·운영 역량 제고
리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경영역량 강화 및 인턴십, 국내외 현장탐방, 프로젝트 등 진행

'19년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 대학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150만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 총 2억원의 상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 준비팀·초기 창업팀(2년 미만 기업)·재도전 창업팀 (사업 마감일 기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지원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 창업공간, 상사상담, 교육,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등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는 사회적기업 만 해당)	일자리 창출 사업	-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업개발비	-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영상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연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원 이내, 단, 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제로 지원 대상 확대)
	경영컨설팅	-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 4년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안정된 시장 여건 조성
	판로지원	- 공동판매장(store 36.5) 상품 입점 및 운영 - 국내·외 박람회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기타	금융지원	- 소액자금 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 등 지원
	프로보노 지원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 사회 협력 연계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자원 연계 프로그램	- 공공-민간의 연계기반 조성, 참여기업 발굴 등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070-4763-0130
	(사)피피엘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9층 911호	02-3789-0023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5층 LG소셜캠퍼스	02-2280-3312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게림빌딩 6층	032-446-9492
서울·인천·경기 (여성)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육성사업동	070-7601-6006
서울·인천·경기 (글로벌)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	02-2665-0718
서울·인천·경기 (IT/도시재생)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	070-5057-3620
서울·인천·경기 (관광)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206호	070-5099-1673
서울·인천·경기 (재도전)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5, SD타워 3층	02-330-0724
강원·대전·충청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삼지대길 83, 삼지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	033-749- 3951-2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 중구 대흥로 10번길 9, 2층	042-320-9540
	한남대학교	대전 동구 한남로 8번길 14-9,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단	042-629-7169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 아산시 반영로 86번길 27-3, 3층	041-415-2012
대구·경북	(사)충북시민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2층	043-221-0311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대구 중구 북성로 102, 2층	053-957-5556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생명과학대학 2호관 2403호	053-850-4770
	대구·경북 (융합기술)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벤처창업관 313호
부산·울산·경남 (디자인/제조)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120, 해운대기술교육원 2층	051-745-3203
부산·울산·경남 (도시재생)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3, 1501-2호	051-803-8388
부산·울산·경남 (재도전)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2층	051-504-0275
부산·울산·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7-13	055-286-6379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중구 신기2길 11	052-267-6176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7층	062-383-4747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광주·전라·제주	(사)상생나무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	061-281-0201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 제주시 중영로 165, 1층	064-726-4843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각정로 164, 4-5층	063-711-2110
	도시재생	(주)안데나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28-1, 2층
논여촌/산림 재도전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 2층	043-264-9979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트 신나는조합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층 200호	02-365-0330

민간·공공 사회공헌자원 연계 지원 부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사회공헌자원 연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사회공헌자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연계기반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참여기업의 발굴, 분야별 경제지원모델 기획, 프로보노 모집 및 매칭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2개사와 53개 프로그램을 협업하였습니다.

TIP 대기업·금융기관 CSR협력 사업 운영 성과('18년 기준)

연번	유형	협력기관명	사업명	재원규모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유형	KDB나눔재단	생산물품구매지원	0.4억
2		삼성그룹	삼성그룹 사회공헌 핸즈온 아이템 개발	0.5억
3		부산시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 관련 디자인 제작	0.3억
4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	SK그룹·하나금융그룹 등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공적여행 프로그램	13억
5		신세계아이앤씨	코딩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0.25억
6		SM엔터테인먼트	드림트리스쿨	0.25억
7		CJ헬로	독거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캠페인	0.03억
8		롯데마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드림캐처스'	2.5억
9		KB국민은행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1억
10		CJ나눔재단	CJ도너스캠프 영상교육 창의학교	1.08억
11		SK E&S	친환경·신재생분야 교육프로그램	1억
12		LH	임대주택 입주청소 시범사업	3.8억
13		SH공사	임대주택 주민 채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2억
14	어워드 유형	KT희망나눔재단	Social Change Maker 공모전	1.9억
15		KB국민은행	사회혁신 프로젝트	1억
16		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프로젝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사업'	3억
17	청년창업 지원 유형	주택금융공사	주거복지·지역사회 발전 사회적경제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성장지원	1억
18		LH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11.7억
19	유통채널 제공 유형	KOTRA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20		롯데자산개발	롯데타워몰 입점 지원	0.068억

21	금융지원/ 투자 유형	SK SPC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어워드	73억
22		주택금융공사	사회적경제기업 가치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1억
23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유형	GS SHOP	영상·미디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24			사회적기업 경쟁력 지원사업(예정)	2억
25		신세계아이앤씨	IT 분야 사회적기업 대상 mini contest	0.6억
26		KDB나눔재단	고용인프라 지원사업	2.4억
27		산학연합회	사회적기업의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28		특허전략개발원	사회적경제기업의 R&D 선행특허기술 조사 지원	0.225억
29		CJ헬로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영상 제작·송출	0.1억
30		한국GM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차량지원사업	4.5억
31		시청자미디어재단	사회적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0.18억
32		하나금융그룹·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무훈련 취업연계 프로그램	3억
33	사회적기업가 육성 유형	우리은행	스타 사회적기업가 양성(we-star)	1억
34		LG전자·LG화학	LG소셜컴퍼스	4.6억
35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유형	하나금융그룹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지원	0.5억
36			발달장애인 직무훈련 프로그램	4억
37			다문화 비즈니스 육성모델 개발	1억
38		SK그룹·하나금융그룹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지원	1억
3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지원	1억
40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0.4억
41		우리은행	우수 통합지원기관 지원	0.1억
42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지원	0.4억
43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원	0.2억
44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지원	0.2억
45			3대 학회 포럼 지원	0.1억
46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지원	0.5억
47			사회적기업 멘토링 지원	0.6억
48			우리은행 육성성과 홍보	0.3억
49	기업간 연합지원 유형	행복나눔재단	행복얼라이언스	-
50	은퇴전문가 노하우전수 유형	현대자동차그룹	신종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운영 협력	2억
51		KDB나눔재단	멘토링 지원사업	0.2억
52		코오롱	코오롱 사회봉사단 프로보노 사업	0.1억
53	기타	롯데주류	브랜드슈 조성	1억

대표적인 민간 지원 프로그램

▶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후원하는 민간협력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위한 청년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이 확대되는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개의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87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0개 사회적기업 창업과 1600명 청년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KDB나눔재단이 지원·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7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며, 활동기간 동안 최대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LG소셜캠퍼스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LG전자와 LG화학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입니다. 금융지원, 공간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지원합니다. 2016년까지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만 진행하였으나, 2017년부터 지원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친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최대 5,000만원,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포함, 사업 안정화를 위한 공간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110여 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혁신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실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S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투자, 사회적기업연구원으로 구성된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여부와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회적 미션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성장·확장 가능한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KOTRA)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해외진출 전략수립, 무역 전문가 교육, 해외시장개척, 온라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수출역량을 평가(GCL(Global Competence Level) 테스트)한 후 수준별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및 개별수요에 맞춘 선택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117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04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37
사회서비스제공형	39
혼합형	40
지역사회공헌형	42
기타형	44
가치를 아는 착한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46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18.12.31.까지는 30%)가 되어야 인 증받을 수 있습니다.

TIP 취약계층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 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 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 위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국내
사례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기업, “베어베터”

NHN에서 근무하던 김정호, 이진희 대표는 임원직을 그만둔 후 한국자폐인사랑 협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두 사람은 우리 사회 속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한 끝에 2012년 ‘베어베터’라 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세히 나눠 진행합 니다. 또한, 인쇄부터 커피, 제과, 화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덕분에 200 명이 넘는 장애 직원들은 각각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아 만족도 높게 근무하고 있 습니다.

베어베터는 꿈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Bear makes the world better.”를 줄인 말입니다. 경쟁력 있는 설비와 장애 인을 이해하는 전문가, 장애 직원으로 이루어진 베어베터는 200여 개가 넘는 기 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도 내부 역량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 가고 있습니다.



참전 군인의 인생 2막을 여는, “Veterati”

베테라티(Veterati)는 2015년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라우(Daniel Rau)씨가 사업가 다이아나 차이(Diana Tsai)씨에게 재향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종종 도외시되는 노동인력인 참전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해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매년 약 20만 명의 군인들이 퇴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퇴역 군인 2명 중 1명은 군대를 떠난 후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20년을 복무하는 군인은 전체 군인의 20%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퇴역 군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민간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취업의 대부분이 인맥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고, 군인들은 사회에 보유한 네트워크가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테라티는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 취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퇴역군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베테라티의 큰 특징입니다. 대기업, 정부와 연계하여 그들에게 퇴역군인이라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대기업에서 사회 공헌 차원으로 퇴역군인을 채용하고자 할 시 공고를 통하지 않고 베테라티의 기술 플랫폼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테라티는 국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군인들이 처한 사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멘티마다 4명 이상의 멘토가 함께하고 있으며, 98%의 멘토가 또다시 멘토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베테라티는 퇴역군인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미국인들의 가치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18.12.31.까지는 30%)가 되어야 합니다.

TIP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위 사회서비스 외에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탄력적으로 인정



여행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두리함께”

제약 쪽 마이스 사업에서 종사하던 이보교 이사는 사고로 목발을 6개월 이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260만이 넘는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으나 일상에서 특히, 여행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그들을 위한 여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별 없는 여행, 차이 있는 여행’을 캐치프레이즈로 건 ‘두리함께’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동선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행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무장애 여행은 일반 여행 기획과 달리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경사 각도와 통로 넓이,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실측해 코스를 개발합니다. 현재 두리함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DMZ 평화기행, 여수 등 국내 여행코스와 후쿠오카, 오사카 등 일본 여행 코스를 제공하며, 일반 여행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리함께를 이용한 장애인 고객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두리함께의 서비스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는 그들도 당연한 소비주체로서 여행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리함께는 여행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 사람을 구하는 구급 의료 서비스, “Tebita Ambulance”

테비타 앰불런스(Tebita Ambulance)는 에티오피아의 한 외과대학 부속병원의 마취 전문 간호사였던 키브렛 어베베 터프아(Kibret Abebe Tuffa)씨가 설립한 응급 구급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당시 구급차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키브렛씨는 부상자를 병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해 2008년 집을 팔고 중고 구급차 3대를 마련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부터 재정 자립을 목표로했던 키브렛씨는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IDA)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략 훈련 과정을 이수하며 테비타 앰불런스 사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다국적기업과 해외 공관, 외국 NGO 단체 및 국외 체류자들에게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와 응급 구조 훈련, 구급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근 지역의 24시간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비타 앰불런스를 이용했으며,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응급교육 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국가대표 축구팀에게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비타 앰불런스는 현지와 외국 정부, 개발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ISO 9001 : 2008을 인증을 획득하고, Addis Ababa Health Bureau의 허가를 받는 등 에티오피아 원거리 의료 지원 및 병원 진료를 제공하는 선두 업체로서 응급 의료 분야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 비율이 각 30%(‘18.12.31.까지는 20%)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사례 기술로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웍스”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고용 시장에서 외면 받아온 고용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던 윤석원 대표는 2015년 그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스트웍스를 설립했습니다. 16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7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테스트웍스는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서도 테스트(소프트웨어 검증 과정)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ICT 전문 교육과 취업연계 과정을 통해 테스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테스트웍스는 3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현재 30명의 정규직, 10명의 프리랜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로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해 90%의 직원들이 국제테스터자격증(ISTQB)을 취득했으며, 직무 만족으로 인한 근속률도 97%에 달합니다.

테스트웍스는 성별, 나이, 장애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더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Koto”

코토(Koto)는 베트남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지미 팜(Jimmy Pham)씨는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코코넛을 팔거나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노숙하거나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과 처음 대면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리의 아이들을 만나며 식사 한 끼를 사주던 지미 팜씨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코토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라(Know One, Teach One)는 의미의 KOTO 기업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토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9명의 직원과 함께 샌드위치 가게로 시작한 코토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아이들과 함께 1년 만에 코토 레스토랑으로 변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아이를 모아 숙식을 제공하며 식당일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유명 호텔 식당에 취업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토를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제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훈련 센터와 훈련 식당을 두고 직원과 연수생, 자원봉사자, 파트너 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토는 더 많은 코토 교육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둘째,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셋째,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TIP “지역사회공헌형” 유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내 사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소박한풍경”

2006년에 설립하여 10년을 훌쩍 넘긴 소박한풍경은 따뜻한 디자인, 함께하는 마케팅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소박한 풍경은 농촌과 지역 사회의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며 마을 브랜드를 구축해오던 것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소박한풍경은 2015년부터 ‘강원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통합물류센터와 숭인숍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마케팅 및 유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운영 2년 만에 참여하는 기업이 100여 개로 늘어난 강원곳간은 현재 250개가 넘는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 전체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입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콘텐츠 기획과 생산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소박한풍경.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제품 피드백과 유통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는 소박한풍경은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업의 수를 늘려가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Hackeny co-operative developments”

대표적인 슬럼가로 손꼽히던 지역이었던 런던의 해크니(Hackney) 지역은 오늘날 가장 낮은 범죄율을 10년 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이 40% 이상 성장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죠. 바로 지역 공동체 경제 개발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ackeny co-operative developments) 덕분입니다.

주거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해크니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달라는 요청에 100년짜리 임대를 받아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사업 기획서를 작성해 '트리오도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융자금을 얻은 해크니 협동조합은 1층에는 상가, 2~3층은 사무공간을 꾸려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혁신가,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전체 80여 사업자가 입주해있는 '달스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주한 예술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이 질 높은 예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해크니는 인기 있는 동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공간을 개발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마약 거래와 강도 발생률도 줄어 들었습니다.

해크니 협동조합의 도미닉 엘리슨(Dominic Ellison)대표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

습니다. 지역에 풀린 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함께 할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해크니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해크니를 더욱더 멋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바꿔 갈 것입니다.

기타형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형”의 경우 폭 넓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유한책임회사 더함”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거비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률활동을 해온 양동수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집은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살을 살아 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것에 착안하여 주거 문제 개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2014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더함은 공간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더함의 사회적부동산 사업센터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 아파트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가꾸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입주 민이 직접 아파트와 시설 커뮤니티를 기획해 운영하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현재 위스테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남양주시와 고양시 두 곳에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짓는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갈 예정입니다. 더함은 더불어 사는 공간, 함께하는 공동체 모델을 정립하는 것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시재생과 혁신공간 창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

옥상 농장으로 도시 내 녹지를 조성하는 “BROOKLYN GRANGE”

일반적으로 건물 옥상은 미사용 공간으로 방치되는 편입니다. 활용한다고 해도 단순 휴게 공간이 전부인 옥상 공간의 새로운 쓰임새가 나타났으니 바로 ‘옥상텃밭’입니다. 201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브루클린 그랜지(Brooklyn Grange)는 딱딱하고 잿빛만 가득한 도심 속 건물 옥상에 녹푸른 ‘루프탐팸(Rooftop Fa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그랜지의 세계 최대 옥상 농장에서는 매년 50,000파운드 이상의 유기농 농산물이 재배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옥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Farm to Table’ 캠페인 운동 하에 지역의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주말에 열리는 프리마켓 등에서 판매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안전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푸드 마일(Food Miles travel,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로 지구 온난화 영향 등 평가)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그랜지는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추가 수익 활동을 통해 교육 및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교육파트너인 시티 그로어스(City Growers)와 함께 청소년을 초청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공간을 활용해 성인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과 요가 수업, 결혼 예식 및 지역 셰프들과의 디너 행사 등 이벤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는 브루클린 그레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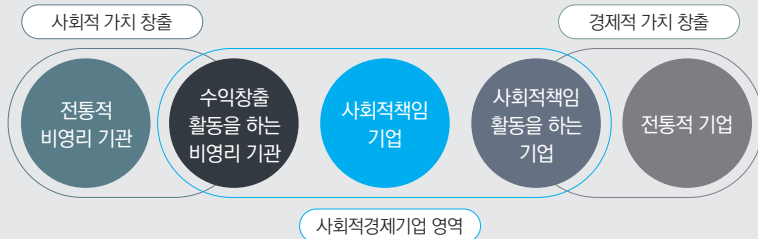
가치를 아는 착한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우리 사회가 발전해오며 함께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 경제 논리를 따르던 세상은 이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가치를 목표하는,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되,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우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그 활동 동기가 있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갖추고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뜻합니다.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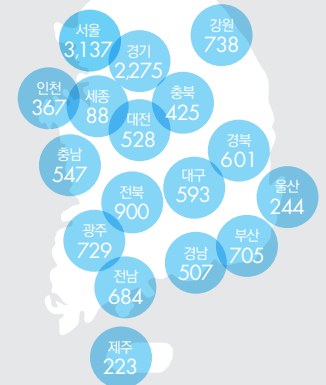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20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교육부	277개
국가보훈처	1개
국민권익위원회	1개
국토교통부	43개
금융위원회	2개
기상청	2개
기획재정부	72개
농림축산식품부	53개
문화재청	1개
문화체육관광부	107개
법무부	2개
보건복지부	249개
산림청	28개
산업통상자원부	26개
새만금개발청	1개
여성가족부	28개
외교부	3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통계청	1개
통일부	2개
해양수산부	5개
행정안전부	30개
환경부	27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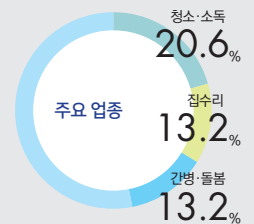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자활 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 현황 : 1,149개소 운영 / 고용인원 7,629명

>> 5대 표준화사업 : 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 음식물재활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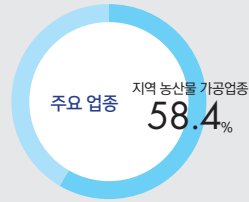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 현황 1,446개소 운영 / 고용인원 16,101명

»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 추세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8.6명

2016년 11명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소셜벤처 (2017년 12월 기준)

소셜벤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입니다. 진흥원은 소셜벤처 캠퍼스 투어,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대학 내 소셜벤처 관련 동아리에 최대 150만원 활동 지원금,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2014년 10팀

2015년 15팀

2016년 15팀

2017년 20팀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회적기업 창업 저변 확산 및 우수 모델 발굴을 위해 운영
-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창업, 글로벌)에서 최종 901팀을 모집하여 33팀이 수상

» 소셜벤처 캠퍼스투어 소셜벤처 경연대회 홍보 및 성공 사례 공유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주요 지역 8개 대학 진행
(성균관대, 홍익대, 서강대, 고려대, 부산대, 전주대, 전북대, 충남대)

05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감밥이날다 누룽지자활협동조합	50
두리함께(주)	58
(주)루미르	66
(주)만인의꿈	74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82
엘리룰하우스(주)	90
(주)착한세상	98
(주)함께나눔	106

갸뱍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

도박중독 회복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갸뱍이
날다

주요사업

누룽지 제조 및 판매,

도박중독자 자활

구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ggambab.com

전화번호

031-591-0990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26

전체 직원 6명 중
도박중독 자활근무자 수 **3명**

갸뱍이날다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한 도박중독 자활자 **2명**

갸뱍이날다 제품 누적 판매 수 **30,000개**





사람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 도박중독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의 물질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나, 도박중독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병 중 하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 국민 100명 중 5명이 도박중독 증상을 앓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의 종류로는 경마나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소싸움, 복권 등이 있지만, 가장 도박중독률이 높은 곳은 역시 카지노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에서는 도박으로 돈뿐만 아니라 가족, 인생까지 잃은 도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도박중독 유병률 :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가진 비율

* 도숙자 : 도박+노숙자(賭宿者),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객지 생활을 하는 자

도박중독자의 단(斷)도박 의지를 돕는 기업

강원랜드 내부에는 도박중독자를 위한 중독관리센터가 있고, 가족이나 본인이 원할 시 일정 기간 입장을 못 하게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 가지 않아도 근처 사설 도박장을 통해 얼마든지 판을 벌일 수 있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누릉지로 고용과 자활을 이루다

정선에 위치한 감밥이날다누릉지자활협동조합은 (이하 감밥이날다)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하기 힘든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단도박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조금씩 도박 빚을 청산하며 사회로 재개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석기 대표는 “베네딕트 수도회를 벤치마킹해, 노동을 통해 맘의 소중함과 일의 신성함을 깨닫게 할 아이템을 오래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일손이 많이 가는 수제 누릉지를 찾았고,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찾아가 기술을 배워왔다. 실제로 수제 누릉지 제조에 집중하는 일은 도박의 유혹을 떨쳐내도록 도왔고, 현재 2명의 자활근무자가 감밥이날다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자활근무자의 채용은 직접 감밥이날다를 찾아온 경우나 강원도 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도박을 끊고 재기하고자 하는 의욕은 기본이고, 반드시 카지노 영구출입 금지자여야 한다. 아닐 경우 급여를 다시 도박으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이 확정되면 2주 동안 누릉지 제조 교육이 진행된다. 감밥이날다는 일반 쌀을 비롯하여 현미, 곤드레, 강황, 보리, 잣, 블루베리 등 7가





자 맛의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어 집중적인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 도박의 위험성 및 도박 근절 교육도 시행한다.

그 후 자활근무자들은 배운 대로 누룽지를 생산하며 일하는 기쁨을 아로새기고 과거를 청산해 나간다. 갬밥이날다에서 하루 생산하는 전체 누룽지 양은 약 50kg 정도. 수제로 정성 들어 만들어진 누룽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유통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녹색치유농장에서 농사 활동을 한다.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성장과 결실의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단도박 의지를 더욱 고양하기 위함이다. 또, 생명사랑협의체와 협업체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생명사랑 힐링운동회도 개최하고 있다.

갬밥이날다는 '갬밥(누룽지 방언)'을 만들며 도박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갬밥이날다는 사회의 신용을 잃어 의지를 갖고도 헤매고 있는 더 많은 도박중독자를 고용하기 위한 누룽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치유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갬밥이날다

갬밥이날다

갬밥이날다! 이런 누룽지를 만들어요~

	신선하고 안전한 100% 햅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
	방부제, 색소, 유해물질이 모두 없는 깨끗한 누룽지
	딱딱하지 않고 바삭해 치아가 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간식
	일반미, 현미, 보리, 강황, 곤드레, 잣, 블루베리 등 다양한 맛의 제품

갬밥이날다의 단도박 활동 포인트



국내산 누룽지 생산

자활근무자들이
직접 만든 건강한 먹거리



녹색치유농장 운영

도박중독자와 함께 농장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유



생명사랑 힐링운동회 진행

100여 명의 도박중독자들과
함께하는 치유운동회



먹거리 후원

탄광촌 지역 요양원과 도박중독자에게
직접 만든 누룽지 후원



감밥이낫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
김석기 대표

도박중독 자활자가 사회로 건강히 복귀하도록 돕다

감밥이낫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 김석기 대표

도박중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처음에 정선에서는 목회자로서 지역 아동들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회하던 교회 주변에서 도숙자의 자살을 목도하면서 정선 지역 내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때부터 3년 동안 도박중독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도박을 정말 끊고 싶어 하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됐다. 목회자로서 이들을 품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감밥이낫다를 시작하게 됐다.

생산하는 누룽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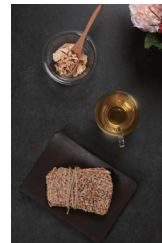
도박중독 회복자들의 원활한 자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유지될 수 없으니 판로와 상품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누룽지는 하준의 동의보감에 '취건반'이라고 나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던 만큼 건강한 제품이다. 이에 건강하고 깨끗한 식품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도박 중독을 평생 끊지 못하는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때 도박중독에 빠졌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그들을 낙인찍는 대신 의지와 가능성을 인정하며, 기회를 준다면 삶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특히, 감밥이낫다와 함께할 사회적기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감밥이낫다가 그리는 미래 모습은?

2018년 5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현대백화점그룹 패셔니스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설비를 정비하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명동 롯데백화점, 강릉 하나로클럽, 강릉역, 강원 농수산물센터, 영월휴게소 등에 입점해있지만,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감밥이낫다는 도박중독자들과 함께 일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일터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두리 함께(주)

차별 없는
여행을
만듭니다



주요사업

무장애 전문 여행 서비스 및

일반 여행

구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jejudoori.com

전화번호

064-742-0078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성두길 7-3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장차량 보유 2대



2017년 사회복지기관 행사 진행 132곳



무장애 여행이 생애 첫 여행인 경우 90%





바깥 활동에 제한적인 장애인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추억이 되는 것이 여행이다. 그 령기에 누구나 일상 중 쉬어가는 전환점을 만들고자 여행을 계획하고 설 램을 안고 떠난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여행하는 장애인을 본 적 있는가?

2017년 말 기준 장애인 인구는 267만 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을 비롯하여 여행지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들이 외 부활동과 여행에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과 달리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무장애 여행을 만드는 전문 여행사

제주도의 두리함께는 이러한 사회적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여행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여행 상품으로는 DMZ 평화 기행, 여수, 통영, 대구 근대화골목, 제주도 등 국내와 후쿠오카, 오사카, 돗토리 등 일본 여행이 있다.

두리함께의 무장애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보다 10배는 더 철저하게 준 비된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여행은 어느 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 기는 순간 여행 전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집을 나오는 순간

부터 여행지를 관광하고 돌아가는 모든 일정에 두리함께의 전문 지식 과 경험이 담긴다.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비행기가 100kg에 달하는 전동 휠 체어를 수화물로 실을 수 있는 기종인지, 여행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리 프트 버스 등의 이동 수단 예약이 되는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확인하 고 준비해야 한다. 또, 식당이나 숙소도 통로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넓은지, 경사로가 있는지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각을 바꾸는 여행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여행 코스는 직원 들이 직접 현지에 방문 조사하여 제작한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예약 을 하고 방문했음에도 일반 손님이 많을 경우 입장을 거부하는 등 안정 적인 코스 운영이 어려웠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이었다. 이에 두리함께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장애인도 정당한 값을 지급하는 손님임을 강조하 고,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 당당히 여행할 것을 권 유했다.





여행을 통해 만들어갈 행복한 세상

4년째 무장애 여행을 지속하자 제주도 내 관광업 종사자들은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생애 첫 여행 또는 사고 후 몇 년 만의 여행에 만족하고 끝나던 것에서, 또 다른 여행지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여행 욕구가 생기며 삶의 질이 향상됐다. 여행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2017년 132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휠체어 보장구 이용자를 중심으로 근육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등 약 4,200명의 고객이 행복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무장애 여행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필요한 인프라로 인해 비장애인도 달리 정가 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저렴한 서비스 비용을 받는 두리함께는 향후 일반 여행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또 다른 전문 분야인 기업 세미나와 워크숍 등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탄탄히 하여 무장애 여행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두리함께의 로고는 여행의 신 에르메스를 표방해 만들어졌다.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모두 있어야 하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마주 보고 함께 살아가길 꿈꾸고 있다. 두리함께의 가치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다음 여행은 두리함께를 통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두리함께 무장애 여행! 이런 점이 달라요~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여행 경로 개발!
	여행지와 장애인 이해를 겸비한 투어헬퍼(가이드) 파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버스와 특장승합 보유!
	완벽한 여행을 위한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

두리함께의 여행사업 포인트



무장애 여행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으로 다양한 여행 코스 제공



일반여행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 일반 여행사업 운영



기관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기업·기관의 행사 준비 및 진행



여행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다

두리함께 이보교 이사

무장애 여행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본래 제약 쪽 마이스(Mice) 사업에 종사하다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과 복지 형태로 무장애 여행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장애인 여행에 적응이 되지 않아 그만두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무릎이 부러져 목발을 6개월 사용하면서 다양한 불편함을 깨닫게 됐다. 특히, 옷가게 앞에서 유리문이 무거워 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참 서러웠다. 장애인을 위한 여행업에 기회가 닿은 것이 하늘의 뜻 같았고,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장애인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군 복무 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여행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과 마주하면 장애인 본인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고, 비장애인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불편하게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되기 시작할 것이다.

투어헬퍼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장애인 여행 안내자를 말한다. 무장애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없어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는데, 단체여행을 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투어헬퍼가 여행지로 출장을 나가 직접 인솔한다. 투어헬퍼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한다. 현재 매뉴얼화 작업을 통해 책자 제작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1명이지만 더 많은 투어헬퍼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두리함께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고객이 어느 여행사를 가도 무장애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에 무장애 여행 선도 기업으로써 꾸준히 콘텐츠를 개발해 공급하며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호텔을 설립해 차별 없는 여행의 발판을 다져 나갈 생각이다.



(주)
루미르

Light of
the World

LUMIR

주요사업

기술 개발을 통한 개도국

빛 부족 문제 해결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lumir.co.kr

전화번호

02-6959-8224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508호



2017년 루미르K 수혜자 **2,000**명



늘어난 야간활동시간 **2,000**시간



루미르K 이용자 만족도 **92**%





전기 시설의 불균형이 만드는 빛 부족 문제

일상에서 빛이 없어 불편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는가? 사실 대한민국은 해가 지면 거리 여기저기를 밝히는 간판 불빛과 상업 조명으로 빛 공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빛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전기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에서는 아직도 빛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려 13억 명의 인구가 빛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열대 기후 특성상 더위가 가신 저녁 시간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임에도, 열악한 빛 공급으로 인해 그들은 교육,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 빛을 만들어 전하다

루미르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작은 불꽃의 열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LED등을 밝히는 기술로 만들어진 루미르의 조명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빛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

초기에는 ‘루미르K’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일반적인 램프에 많이 쓰이는 Kerosene(등유)이 열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그러나 인



변화를 만드는 현지 특화 조명

도네시아의 칼리만탄섬으로 직접 가서 필드 테스트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됐다. 등유의 질이 지역마다 달랐던 것이다. 뭉게 희석되거나 불순물이 섞인 등유는 조명을 망가트렸다.

현지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향을 고민한 끝에 루미르K는 식용유를 사용했다. 인도네시아의 7대 필수품 중 하나인 식용유는 어디서나 품질이 동일했고, 가격 역시 리터당 6~700원 정도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지에서는 미비한 인프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비싸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조명만 있다면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한 달 내내 4시간씩 조명을 켜도 1달러도 되지 않는 가격에 반응은 더욱 호의적이었다. 더욱이 루미르K는 등유 램프처럼 해로운 물질을 발산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건강에도 이로웠으며, 광원도 훨씬 밝았다.

2017년 말 2천 명의 일반인에게 보급된 루미르K. 이를 통해 빛이 생긴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길거리 임시가판대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더운 낮에 공부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밝히는 조명 소셜벤처, 루미르

이렇게 현지에 꼭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며 제품을 수정해온 점이 컸다. 현재 루미르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B2C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대기업 '산림'과 본격적으로 루미르K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판매 비즈니스 모델 연계를 고민 중이다. 또한, 좀 더 발전된 개념의 홈 조명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루미르는 국내와 선진국 등지에 디자인 조명을 판매하고 있다. 테라스 문화가 있는 서구를 대상으로는 양초로 밝은 조명을 켜는 루미르C가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도 독특한 모양의 루미르S 제품은 품절 현상을 빚고 있다.

이제 법인 설립 4년째인 루미르는 한국에너지연구원부터 일본의 국영연구기관인 AISD 등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전구와 다양한 글라스 색상 등으로 차별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 반기마다 3~4개의 새로운 조명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상을 비추는 사명대로 루미르는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의 삶을 밝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LUMIR

루미르K! 이런 점이 달라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로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조명!
	등유 램프보다 4배, 태양광 램프보다 2배는 더 밝은 광량!
	배터리 수명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약 10년간 사용 가능!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확 줄인 친환경 제품!

※루미르K는 비전력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만들어 판매되어 선진국과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루미르의 조명사업 포인트



글로벌 조명사업

개도국과 선진국을 타깃으로 다양한 조명 개발 및 판매



철저한 필드 테스트

9개월에 걸친 현지 테스트로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조명 제조



든든한 기술 협력

한국국제협력단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파트너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력 중



루미르 박제환 대표

빛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루미르 박제환 대표

왜 동남아, 그중 인도네시아를 타깃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처음 빛 부족 문제를 인식한 것이 인도 여행을 갔다가 정전 현상을 자주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통 전력이나 에너지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아시아권에 중점을 두었다. 그중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가 약 2만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수도인 자카르타는 괜찮지만, 모든 섬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택했고 앞으로도 아시아권에 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태양광 조명과 비교가 많을 것 같다.

아무래도 '개도국 조명사업'하면 솔라홈 시스템 사업을 많이 떠올려서 그런 것 같다. 당연히 태양광 조명 역시 좋은 시스템이지만 동남아는 아프리카와 달리 일조량이 일정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특히,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은 대부분 밀림 지역이라 충전이 더욱 어려운 편이다. 앞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열을 이용한 조명이 더 좋은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당연히 지속가능성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후에 그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며 같은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는 자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품 개발에 힘써 매출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야 꾸준한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다.

앞으로 루미르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올해는 성장과 도약의 해로 목표를 잡았다. 신제품 개발부터 판로, 보급까지 탄탄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특히 갓 판매가 시작된 루미르K의 경우 2017년 수혜자가 2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수를 2만 5천 명까지 늘릴 생각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비콕 인증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더 원활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만인의 꿈

청년의 꿈이
UP(業)이 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만인의꿈

주요사업

유휴 부동산 공유서비스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manindream.com

전화번호

070-7848-6707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2층



만인의 꿈 입주민 **142**명



창업지원 및 취업연계 **36**명



운영하고 있는 주거, 사무, 점포공간 **75**개실





꿈꾸는동지

꿈보다 생계가 중요한 청년들의 현실

보통 청년의 특권이라 하면 ‘꿈’을 손꼽는다. 그들만이 가진 젊음과 에너지가 더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청년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혹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비싼 서울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고시원과 옥탑방을 전전하고 있다.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청년들은 생존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꿈을 포기하고 빈곤에 갇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만 있는 청년들. 어떻게 해야 그들이 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공유 주거로 경제성을, 네트워크로 사회성을

신촌에 자리한 만인의꿈은 공간 베이스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임차한 부동산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해 2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동지’라고 불리는 이 주거공간은 현재 21개소로 무려 142명의 청년이 입주해 있다.

물론, 동지의 매력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인의꿈은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 아래 동지

원(입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다. 덕분에 타지에서 올라온 대다수 동지원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으며 생활하고 있다.

만인의꿈은 동지원 사이의 친분과 소속감 형성을 위해 모든 동지원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공재 구매를 지원하는 동지 포인트 제도를 통해 동지원들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또, 독서나 영화감상, 영어 공부, 길고양이 챙기기 등 관심사가 맞는 이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동아리(동아리) 활동도 원조하고 있다.

함께해서 더 즐겁고 든든한 성장

청년들이 꿈과 삶의 방향성을 찾길 바라는 만인의꿈은 동지원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1:1로, 동지가 확장된 지금은 그룹 형식으로 같은 꿈을 가진 청년끼리 모여 관련 분야 선배를 매칭 받거나 꿈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이들과는 면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미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간다.

한편, 상경 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지원이 신촌의 주민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역 일자리도 소개하고 있다. 덕분에 신촌 인근의 점포나 서대문구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으니 상부상조인 격이다.



만인의꿈

만인의꿈! 이런 공간을 만들어요~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주거지



식당도 카페도 OK~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업 점포



창업을 꿈꾸는 이도 스타트업 기업도 만족할 공유 오피스



편하게 모여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사람도 지역도 활성화하는 만인의꿈

만인의꿈은 동지 수만금 매출액도 크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건물 임대료로 빠져나간다. 실제 임대료는 매해 오르고 월세를 똑같이 올릴 수 없는 실정하기에, 만인의꿈은 다른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스터디 카페 '주야창천', 일상의 소소함을 나누는 커뮤니티 펍 '일상의 온도', 함께 이용하는 작업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꿈피스' 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인의 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도 사회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만인의꿈은 청년에게 살아갈 곳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 있는 만인의꿈. 새로운 청년 마을과 문화를 선도하는 만인의꿈을 응원한다.



만인의꿈의 공유 주거사업 포인트



저렴한 비용

값싼 보증금과 월세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감소



믿음직스러운 공동체

타지에 혼자 있다는 고독함과 불안 대신 끈끈한 소속감 부여



다양한 활동

꿈을 위한 교육부터 취미생활까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진행



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청년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초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드림인턴 프로젝트 및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는데, 단기 지원으로 인한 변화는 순간이었어요.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해서는 청년에게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했고, 자선사업의 형태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단기과정을 접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를 알게 됐고, 이후 MBA 과정을 마치며 '만인의꿈'을 설립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신촌에 집중하는 이유는?

신촌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도시로 대표되는 곳이다.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이 밀집해있고, 문화의 도시 홍대와도 인접해있다. 나 또한 그랬고,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장소가 됐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과 오랜 시간 부흥해온 신촌은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곳이 되어버렸다. 나는 신촌을 다시금 가장 청춘스럽고, 아무것도 없이 꿈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동지원이 직원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8명의 직원 중 4명이 동지에 살고 있으며, 새로 입사한 직원들 역시 일정기간 동지에서 생활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만인의꿈에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점장부터 스텝들까지 모두 입주민 중에 채용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앞으로 목표하시는 바는?

사회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들이 그 시작을 만인의꿈과 함께했으면 한다. 청년들의 서울살이가 행복하고, 꿈과 미래를 위한 좋은 청년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고 싶다. 또한 지금은 150여 명에 불과한 입주민의 수를 2년 내에 500명 이상까지 늘려 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언제든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동 행복한돌봄

돌봄은
관심입니다

우정각시 성동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주요사업

가정 내 돌봄, 여성 일자리 창출

구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dcarecoop.com

전화번호

02-463-0029/0071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2, 7층



전체 직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6명 **66%**



가정내 돌봄 월평균 매칭건수 **125건**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생 월평균 **19명**



이용자 만족도 **90.3%**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 누군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는 만큼 일을 분담해 가정을 돌봐야 하지만,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쌓여있는 집안일까지 처리하는 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일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일부터, 정규 교육시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유치원생 돌봄 문제, 갑작스러운 병치레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여성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육아와 가사에 몰두하는 '경단녀'가 되고 있다.

일상을 지켜줄 돌봄 전문가

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영망이 되어가는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도 삶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성동행복한돌봄은 돌봄 서비스가 받는 이와 행하는 이,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가치관 아래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사서비스만 진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늘어났다. 이에 돌봄을 세분화하여 '베이비·산후관리', '등하원아이돌봄'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사 분야 담당 인원은



60명, 베이비·산후 20명, 아이돌봄 40명으로, 총 120명의 돌봄 서비스 전문가가 근무 중이다.

그중 가장 활발한 사업은 아이돌봄기동대 프로젝트로, 성동행복한돌봄이 소속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서울시가 3년째 연계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등·하원 등 필요한 시간이나 급작스러운 회식, 질환 등으로 인한 돌봄 요청을 담당하며, 기동대원으로는 60세 이상 여성을 고용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일자리를 원하는 근무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탁월한 업무스킬로 돌봄을 직업화하다

사실 아이돌봄 외에 가사와 베이비·산후 종사자들도 대부분 40~60세 사이 여성인 것을 생각하면 전문가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회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 집안일은 여성이 전담하는 영역이고, 소속 전문가들 역시 여성으로서 집에서 하던 일을 밖에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동행복한돌봄은 IMF 이후 취약계층 중장년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출발했기에 사업 초기부터 돌봄의 전문성 문제에 집중해왔다.

단순히 고객이 시간이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일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 자명했다. 이에 초기부터 고객이 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자 직무교육을 시행, 강화해왔다. 요

돌봄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자

리부터 다림질, 정리 수납, 서비스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고객응대법 등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돌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월례회의 때마다 사업보고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수 교육을 진행해 직업 전문성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성동행복한돌봄은 서비스를 진행할 때마다 고객과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업무 및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근무자들의 준비된 마인드로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신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사업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는 '종합돌봄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재 운영하는 사업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정 내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의 공신력과 돌봄 전문가에 대한 직업적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성동행복한돌봄의 이순영 이사장은 "전문가를 통한 돌봄의 전과 후는 돌봄 서비스에 속한 모든 이에게 변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면 전문가에게 돌봄을 맡겨보자. 생각한 이상으로 일상의 평화와 더불어 삶의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령각시 성동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성동행복한돌봄! 이런 점이 달라요~

	비전문적인 업무처리는 NO~ 철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행!
	소통이 핵심, 서비스 전 고객과의 면담을 통한 설명은 필수!
	서비스 이후에는 고객과 종사자 만족도 조사로 개선점 도출!
	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자리 창출 목표!

성동행복한돌봄의 지역사회공헌활동 포인트



무료 가사 서비스

월 1~2회 지역 내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진행



고독 방지 말벗 봉사

독거노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
유사 연령대의 직원이 찾아가 삶과 고민 공유



성동행복한돌봄 이순영 이사장

돌봄 서비스가 직업모델로 인정받는 날까지

성동행복한돌봄 이순영 이사장 / 강석금 이사

돌봄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사 사업의 경우 벌써 15년째 진행해 왔는데, 어려웠던 점이 사람들이 이를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였다. 이에 2006년부터 우리가 속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YWCA가 함께 공청회, 입법로비, 퍼포먼스,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 돌봄 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11조 노동자 기준에는 가사사용인이 제외라고 적혀있어 법적 노동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요구 중이다.

돌봄 전문가 채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가사는 본래 협회 소속 3개 지부가 공동 교육을 하고 채용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 이제 지부별로 교육을 진행해 채용하고 있다. 베이비·산후의 경우는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고, 성동여성인력센터와 교육협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 실무진이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을 진행해 채용한다. 아이돌봄은 서울시와 함께하는 만큼 공동으로 모집과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월례회의에서는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정보 공유뿐 아니라 근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함께 듣는 등 끈끈하게 소속감을 다져나가고 있다.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어질수록 다 같이 조직발전 방향을 고민해 기업은 성장하고, 돌봄 종사자들은 업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성동행복한돌봄이 추구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단체인 성동희망나눔에서 독립해 법인격의 형태는 갖췄지만 아직 복지적 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편이다. 이에 2018년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확립해 누구든 같이 일하고 싶은, 보람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강석금 이사

엘리롤 하우스(주)



Bake a Dream!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같이 맛있게
베이킹하겠습니다

ELLY
ROLL HOUSE®

주요사업

주문제작 케이크 및 디저트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ellyrollhouse.com

전화번호

053-213-0888

주소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로10길
28-5

전체 직원 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4명**



누적 베이킹 교육 학생 **300명**



이미지 롤케이크 재구매율 약 **65%**





열악한 환경 속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보통 문제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 수가 39만 명에 이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과 범위가 다양해진 만큼 그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많이 생겨났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위기 청소년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축되게 하고 사회적 낙인에 따라 의욕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만든다.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생계 문제로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이 열등감에 빠져 사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꿈을 찾아갈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직업 체험으로 자존감 회복을

국내 최초로 이미지 롤케이크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엘리롤하우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는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앤쿠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 1회 무료로 진행한다.

초기에는 레시피를 중심으로 베이킹을 가르쳤다. 그런데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직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직업교육보다는 체험형 수업이 더 적합했다. 이에 수강하는 청소년 및 센터

와 소통하면서 커리큘럼이 변경됐다.

제과제빵 기술 교육 위주였던 베이킹 클래스는 재미있게 즐기고, 무언가를 완성하며 얻는 보람, 성취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목표로 세웠다.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교육한 후,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레시피를 찾아와 나만의 제품을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삶의 방향을 찾아 나서는 인턴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와, 대면한 청소년들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들은 엘리롤하우스는 직접 고용도 시작했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이들은 의외로 금방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다른 곳보다 좋은 근로 조건임에도 일을 그만두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이 계속됐다. 그리고 그 끝에 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꿈과 진로 방향을 잡지 못한 청소년에게 삶의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엘리롤하우스의 인턴제도는 직장인으로서 배우고 생활하는 것 외에, 전 직원이 청소년 1인에게 집중하여 케어하는 형태다. 직원별로 청소년과





한 명의 변화가 만들 나비효과를 기대하다

1:1 기술 교습부터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외부 전문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다. 특히, 1년의 인턴제를 마칠 때에는 다 함께 해외 견학을 나가 유명 베이커리를 경험하며 꿈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인턴제도는 커리큘럼을 명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1인과 함께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체계가 완성 되고 나면 전년도 매출 10% 대비로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며 본격적으로 인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 카페를 개장하는 등 엘리롤하우스의 비즈니스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아나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남호훈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친구들은 보통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 인턴제를 통해 누군가 꿈을 찾고 변화한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도 높은 보살핌과 교육으로 한 사람의 변화를 만들고, 이어 연쇄적인 변화를 꿈꾸는 엘리롤하우스. 더 많은 이들이 엘리롤하우스의 가치와 비전을 공감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 갖길 기대해본다.



엘리롤하우스 이미지 케이크! 이런 점이 달라요~

- 제품 전 과정을 소분해 수작업으로 만든 부드러운 빵!
- 원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삽입한 고객 맞춤형 나만의 케이크!
- 합성 보존료 없는 신선한 케이크를 당일 제작 및 배송!

엘리롤하우스의 인턴제도 포인트



1:1 집중 케어

인턴과 직원들의 1:1 맞춤형 교습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세밀한 케어



전문 상담

월 1회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통해 전문 상담 및 피드백



해외 견학 프로그램

인턴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로 해외 유명 베이커리 견학 진행
* 2019년 실시 예정, 프로그램 계획 중



엘리롤하우스 남호훈 대표

달콤한 케이크가 만드는 사회 변화

엘리롤하우스 남호훈 대표

국내 최초 이미지 롤케이크를 제작하고 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와이프의 공방을 함께 보다가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본래는 떡 케이크를 주력하고자 했는데, 우연히 이미지 케이크를 발견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연수를 받아왔다. 그런데 해외 제빵 방식은 눈을 그리고 굽고, 코를 그리고 굽는 형식으로 하루 5~10개 이상 생산이 어려웠다. 천 번 넘는 실패 끝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며 본격적으로 이미지 케이크를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카페와 제빵을 함께 운영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부부가 번갈아 가며 쓰러질 정도였다. 그때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처남이 일을 돕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조금이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돕고 싶었다. 이에 운영하던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됐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초기 카페와 제빵을 함께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결국 카페를 접으면서 온라인 사업에 몰두하게 됐다. 이미지 롤케이크가 일반 케이크보다 특별하다 보니 기념일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었기에, 기념일에 민감한 2030 여성을 타깃으로 SNS 홍보를 운영했다. 덕분에 지금은 대구보다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타지역의 판매가 90%로 이루어지고 있다.

엘리롤하우스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청소년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내면과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춰, 집중 케어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훗날에는 청소년들에게 세어하우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신제품 개발과 카페 운영, 체험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주) 착한 세상

부산온나,
공유에
가치로 답하다



주요사업

사회적경제 공유마켓,
지역관광상품 및
실버주얼리 개발

구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mansaok.com

전화번호

051-989-7942

주소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54-3



오픈마켓입점 및 소셜마켓 **7** 개점



사회적경제 공유마켓 참여기업 **38** 개



공유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자 수 **95,431** 명



공유마켓 제품 평균 재구매율 **39.7**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사회적경제

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성장 과 저고용 문제 속에서 빈곤을 대물림하며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사회적 가치나 퀄리티가 높은 상품도 마케팅이나 디자인 경쟁력이 약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등 비즈니스 영역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연대로 공유마켓을

부산의 착한세상은 미션 그대로 공유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공유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총 5개의 오프라인 판매장(롯데 아울렛 동부산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 면세점 용두산점, 부산경제진흥원의 크리에이티브샵, 소셜컴바인 공유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토어팝, 옥션, G마켓, 마이복지물 등)에서는 무려 38개 기업의 200여 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면세점 등에 입점하려면 공모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착한세상의 공유마켓에 입점하면 보다 간편하게 판로



를 확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과 백화점의 요청으로 보다 트렌디한 상품 패키지를 개발 중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제품 상세페이지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착한세상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세페이지를 디자인 제작하고 있다. 김정에 대표는 "착한세상이 다양한 지역 작가들과 협업하고 있어 각 상품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린 표현이 가능하다. 덕분에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 작가와 함께 만드는 지역관광상품

공유와 연대로 함께 성장하며 지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해온 착한세상은 고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지역사회와의 동반을 과제로 삼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지역 간 체험활동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한 팝업카드 체험키트로, 전국 최초 '팝업카드 체험장'을 운영했다. 그 후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게 됐다. 지금은 팝업카드부터 실버주얼리, 해양생태, 케이코토퍼, 페이퍼아트 등 총 19가지의 종합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체험장은 현재 '영도구 까치배움터'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한편, 착한세상은 지역 아티스트와 소상공인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적 특



신뢰와 공유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다지다

색을 살린 시그니처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업 상품으로는 한국먹글씨 작가의 치매예방 버킷노트, 전문 일러스트 작가의 관광 스팟 엽서 및 엽서명함, 마법 명함, 귀금속 디자이너의 광안대교·용두산 등을 본뜬 리빙용품이 있다.

착한세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소셜마켓, 복지몰, 공공구매물 등의 소셜컴바인 공유마켓물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상품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스토리 소셜브랜딩을 통해 해외 아마존닷컴 입점을 시작으로 수출까지 계획 중이다.

체험·진로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기존의 체험활동에 은공예지도사 자격 과정, 전문심리검사 및 성격유형검사를 접목해 진로와 직업을 컨설팅하는 진단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기업이 많아진 만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체험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함께 하는 지역 경제, 희망으로 열어가는 지역사회. 착한세상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대와 공유의 가치를 아는 착한세상이 그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착한세상! 이런 상품을 만들어요~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 고유성을 담은 지역관광상품!
	부산시 품질인증 체험장에서 지역주민, 청소년,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문화 체험활동!
	은공예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은공예 지도사 자격과정 운영!

착한세상의 공유마켓 소셜컴바인 포인트



오프라인 입점 지원

부산 내 5개의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판로 지원



온라인 페이지 구축

사회적경제상품을 재포장, 합포장, 리사이클하여 어디서나 공유판매가 가능한 웹 페이지 구축



패키지 디자인

함께 연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작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트렌디패키지 디자인으로 통일성 부여



착한세상 김정예 대표

사회적경제의 성장 포인트를 유대와 공유에서 찾다

착한세상 김정예 대표

어떤 식으로 판로 개척 및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착한세상은 5곳의 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외에 전국 박람회와 장터, 프리마켓 등을 300여 회 이상 참가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공공구매 우선제도, 해외수출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온라인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프러스 친구 등 가능한 SNS를 운영하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단,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 있는지?

우선 고객들이 '사회적경제'를 좀 더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 제품을 재구매하는 고객에게서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기업으로, 그 기업이 가진 가치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협업하는 지역 작가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게 되는 등 소통이 확장되는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연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가치만 추구하고 집중하다 보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면 내 눈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열려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서로 돕고,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한다.

착한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은?

단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공유판매장을 체인화하여 2020년에는 100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기업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꽃 피울 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찾아 협약을 맺어왔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착한세상은 앞으로도 공유의 가치를 외쳐 공동체를 이루고, 연대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주) 함께 나눔

천국으로의
길을
도와드립니다



주요사업

유품정리, 특수청소, 소독방역,

탈취제 판매

구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hamge.co.kr

전화번호

1661-6872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34번길 71, 2층



전체 직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6명**



유품정리 연평균 **200여 건**



고독사 유품 및
거소정리 연평균 약 **50건**



고독사 예방교육 진행 **5건**



늘어나는 고독사, 떠오르는 유품정리업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17년 65세 이상 1인가가 137만 명으로 집계됐고, 자연히 '고독사'와 관련된 기사도 많아졌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050세대에서의 고독사도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의 사망은 물론 혼자 살다 외롭게 숨을 거두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신이 늦게 발견된 고독사와 무연고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업'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업종이지만, 연간 3만 2천여 명의 고독사로 '무연사회'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일본에서는 천여 개의 유품정리업체와 5천여 개의 특수청소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의 손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유품정리업의 주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고인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와 다시금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정리하는 '전문청소'다. 이에 일본에서는 유품정리사 자격증 외에도 특수청소업 형태의 허가증이 있어야 유품정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일본에서 연수를 마친 바 있는 이창호 전무는 2011년 '크린키퍼스'를 창업했고, 지금의 조금복 대표와 만나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주)함께나눔」이 되었다. 함께나눔은 확실한 위생적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으로 탄탄히 준비된 전문 유품정리기업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경기지방경찰청에 강력범죄 현장정리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참여,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청소업체에서 유품을 버릴 것으로 여겨 대부분 폐기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함께나눔은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향을 피워 고인에게 예를 표한 다음 위생 및 환경과 직결되는 해충 박멸과 특수소독부터 실시한다. 그 후 정리 중에 발견되는 현금, 보험증서, 통장인감 등 유족에게 전할 귀중품과 재활용품, 폐기물품 등을 각각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후까지 존중하는 함께나눔

이렇듯 유품정리업이 고독사 현장의 전문적 처리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의 유품정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들 또는 청소업체에서 유품정리를 대신했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하면서 전문적 처리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 이후 유족은 당장 직장 또는 생업에 복귀해야 할 경우도 있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고인이 남긴 수많은 가재





도구를 일일이 확인해 보관하거나 정리하는 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한편, 근래에는 1인 가구나 덩크족 등에서 자신이 죽은 이후를 걱정하는 경우 '사전준비 서비스'를 통해 사후 유해 및 유품 처리를 예약해두기도 한다. 삶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삶의 끝인 죽음의 모습까지 잘 마무리하며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품정리는 장례문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과 함께 변화를 꿈꾸다

특히, 함께나눔은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홈케어서비스'를 유품정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있다. 유품정리업종의 특성과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민원 처리와 더불어 고독사 징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이다. 한편, '마침표노트(Ending Note)'를 발간, 배포해서 일반 가정의 노인은 물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5개소에 직영점을 목표하고 있는 함께나눔은 각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펼치며 지역 내 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9명 중 6명의 직원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만큼, 함께나눔의 잠재력은 더 많은 지역 및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내 유품정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함께나눔이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가 몹시 기대된다.



함께나눔! 이런 점이 달라요~ 유품정리를 천사의 손길로

	유품정리 전에 향을 피우며 예를 갖추고 시작!
	각종 해충과 악취는 NO~ 친환경적인 전문 특수청소!
	귀중품, 재활용품, 폐기물, 하나하나 분류하며 정리정돈!
	AS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전문브랜드!

함께나눔의 지역사회공헌활동 포인트



소독 및 청소 봉사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과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문 소독 봉사활동 수행



일상용품 기부

가전제품, 휠체어, 가구 등
유품정리를 하며 매입한
물건을 노인시설 등에 기부



고독사 방지 및 대책 강의

고양시 3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 강의 시행



무연고 고독사 유품정리 봉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사망 및 고독사가 있을 경우
서비스 봉사 활동



함께나눔 조금복 대표

유품정리로 반듯하게 삶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자

함께나눔 조금복 대표 / 이창호 전무

현재 함께나눔 유품정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한 달에 평균 18건 정도 진행한다. 6~8월의 경우 업무의 50% 정도가 고독사고, 여름이 아닐 때는 30~40% 정도가 해당된다. '춘궁기'라는 말이 있듯이 유품정리업에는 '한궁기'가 있다. 겨울에는 일반 가정은 물론 고독사인 경우에도 악취가 덜해 일반 청소 또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탈취제 '크린키퍼'를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유품정리를 하면서 국내 악취제거제를 모두 사용해봤는데 완벽히 마음에 들게 냄새를 잡는 약품이 없었다. 대부분 일시적인 제거로 끝나는데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창호 전무가 일본의 유품정리업체들을 돌며 제품들을 벤치마킹했다. 2018년 4월 우리 기술력과 기존 위생용품의 특징을 합쳐 '크린키퍼'의 개발을 마쳤다. 초강력탈취제 크린키퍼는 애완동물 냄새나 새집증후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품평회와 마케팅 기반구축을 마치고 이제 시판단계에 있다.

국내 유품정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전무는 홍익평생교육원에서 받은 유품정리사 1호 자격증서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연수받은 것이 확인되어 인증을 받은 것인데, 아쉽게도 이후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유품정리업도 일본처럼 철저하게 자격증에 기초한 허가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유품정리사 민간자격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함께나눔이 지향하는 향후 목표는?

유품정리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일본과 같이 유품정리업이 활성화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최근 유관 행정기관에서의 공모사업 4개에 선정되어 마케팅, 광고 및 홍보 분야 지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략적 홍보와 공론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유품정리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다. 함께나눔, 상생의 의미를 가진 타이틀도 참 좋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전무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태평 2동 3440) 6~8층
발행인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연락처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www.socialenterprise.or.kr
취재·디자인	주식회사 지지씨에스 02-6672-3030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 책자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